

# 202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8.27.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6	1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6	-	-	12	-	12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 다. 전월(7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창사 60주년 특집 이음 보도> 창사60주년 특별기획 <이음>을 뉴스 에서 잘 봤는데 향후 방송 일정이 어 떻게 되는지 궁금함	<이음>은 일정을 정해놓고 송출하기가 어려워서 사안들이 있을 때 소식을 발굴 해서 소개할 예정임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폭염 관련 보도> 폭염보도를 할 때 백배노동자나 노인 들, 취약계층이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 해야 하는지 보도해 주었으면 함	폭염 관련 보도시 취약 계층에 대한 부 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담아보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응급 의료 관련 보도> 응급실 이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에서 시민들이 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려주길 바람.	경찰 출입 의료 담당 기자들이 좀 더 책 겨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판결 관련 보도> 판결을 보도할 때 재판부나 판사이름 을 언급하는데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 으로 판사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적절 치 않아 보임.	독립적인 사법부라는 인식하에 단독도 판사 이름을 명기하도록 배웠는데 변동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다 면 바꾸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항소심 판결 보도> 판결을 보도할 때 재판부나 판사이름 을 언급하는데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것 으로 판사 이름을 보도하는 것은 적절 치 않아 보임.	뉴스 길이 문제로 판결 이유를 자세히 담지 못했는데 좀 더 정제된 단어들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 보도>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대전MBC 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졌으면 하 면 아쉬움이 있음.	나름대로 팔로우업을 하긴 했지만 향후 추이를 보면서 여건에 맞게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기후 재난 관련 방송> 지역개발 사업이 있을 때 기후와 연관 돼 너무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중장 기적인 토론과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시민들의 리빙랩과의 정목을 검토해 일 상생활에서 기후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 처하고 아젠다를 형성할지 공동으로 노 력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상수도 이슈 보도> 폭우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상류지역 에서 대청댐으로 떠내려 오는데 상수 도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주었으면 함	대청댐 쓰레기 부분처럼 주민들의 생활 과 연관된 이슈들은 발 벗고 다루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지역체육회 기부금 관련 보도> 지역체육회가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공의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기부금 논란도 양쪽의 입장을 들어주었으면 함	대전도시공사의 육상연맹 기부금 논란 때문에 가맹 경기단체 지원이 많이 없어 진다는 보도였는데 쌍방의 입장이 맞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보도	<경찰 사망사건 은폐 의혹 보도> 경찰 사망사건에 대해 가족들은 진상 규명을 원하고 직장노조에서는 경찰 근로환경 개선을 원하는데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오늘 유족들과 경찰 직협이 경찰서를 향 의 방문하는데 속보로 보도할 예정이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음 <24. 8월 조치>	'24.7월
교양	<오늘M 초대석> 홍성군 현장 생방송에서 초대석에 홍 성군수 인터뷰가 15분정도 너무 길게 나와서 불편했음.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영상을 다채롭게 구성하도록 하 겠음. <24. 8월 조치>	'24.7월

교양	<시시각각 부활 관련> 시시각각 포맷을 신설이 아닌 부활로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업로드 위치를 알려주었으면 함	인력난으로 포맷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ENG물이 보강되는 체제로 변화를 검토하고 있고, 위치는 대전MBC 유튜브 채널 하단에 있지만 개선하도록 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교양	<지역 문화 예술 방송> 우금치 관련 공연 내용을 다뤄서 좋았는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관련내용을 많이 다뤄주었으면 함	우금치 공연에 대한 좋은 평가에 감사드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 꾸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교양	<마당극 관련 구성> 풍물 마당극을 전개하면서 산내 학살 사건에 대한 영상이 별도로 나왔는데 풍물 자체를 재미있게 다뤄주었으면 함	마당극 내용이 사회고발적인 부분이라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마당극 자체의 흥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교양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홍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 홍보나 사업 매칭을 고민해 주었으면 함.	청소년 자립이나 공익적 지원 활동을 많이 소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24. 8월 조치>	'24.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8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05.01~26.0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05.01~26.0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	민주노동 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05.01~26.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2024년 8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영시축제 관련 보도> 행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비평 또는 방향 제시, 지역 경제 유발효과 4천억에 대한 수치 검증 보도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저출생 관련 기획 보도> 저출생과 1인가구 등에 대한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기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골령골 피학살자 위령제 보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평화공원 조성 등 매년 반복되는 얘 기만 보도했는데 올해의 특징을 잡아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 보도>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의 경우 후속보도가 미흡해 보 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충남대병원 파산 이슈 보도> 지역언론에서 충남대병원 파산 이슈를 의료진 파업이나 전공의 부족으로 다루는데 세종병원 설립 4천억에 대한 경영 부실 문제도 다뤄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보도	<기후위기 대응법 관련 보도> 지천명 관련 보도시 지역민의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실제 홍수문제가 해결되는지,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인지를 먼저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타이틀과 자막> 시시각각의 타이틀을 참신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정 보 제공 측면에서 자막을 활용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대입 관련 토론 2부작> 대입 관련해서 중학생 등 아직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 을 위해 방향성 제시와 변화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제 작해주시기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프로그램 홍보 관련> 시대공감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교양	<늘봄 학교 문제> 늘봄 학교 문제는 교육청의 예산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재로 더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건강플러스 주제 관련> 더위로 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건강 플러스에서 계절이나 시기에 맞는 소재를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오늘M 단체장 출연 관련> 청양군수 출연 관련해서 다른 영상이나 진행자의 보조 없 이 15분 정도 발언만 하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데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함.	회의록 첨부	○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진종재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8건인데요. 노래 선곡 대한 불만 1건, 행사에 대한 불만 4건, 기타 문의 및 요청이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본업이 있으신데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사특집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1회 방송했는데요. 향후에도 12회까지 방송될 예정이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창사 60주년 기념 프로그램과 행사현황을 보내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8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대전MBC 창사 60주년의 여러 기획이 시작이 되

는구나 생각하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위원님들의 모니터링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위원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위원

8월 한 달 동안 대전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행사라고 하면 영시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시 축제 관련해서 잘했든 못했든 어떤 형태로든 정보성으로서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주관사가 타 방송국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비평 또는 방향 제시 등이 있었으면 했는데 8월 20일자 뉴스에는 대전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반영해서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4천억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언론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검증이 필요하고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층 보도를 더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진짜 이 정도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는지 방문객은 정확한지...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허수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대전MBC에서 보도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주영 위원

<시시각각>을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초유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부동산 대책 효과와 파장 이렇게 제목을 달으셨는데요. 시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타이틀 제목을 만드실 때 조금 더 참신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혼돈의 2025년 대입... 혼돈스럽지 않았던 대입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입시 준비하신 분들도 그 당시에 닥쳐서 공부하지 않으면 입시 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전형도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들으면서도 외국어 듣는 줄 알 정도였기 때문에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보 제공의 측면도 있었던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막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걸로 흘러가버리니까 그런 게 자막으로 정리되면 좋겠고 <시시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대입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시각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미화 위원

저도 <시시각각>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광복절 파행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제가 유의 깊게 본 뉴스는 식품사막화인데요. 고령층이면서 심각한 1인 가구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까지 제시해주셔서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출생에 관련된 현상... 160개의 어린이집이 폐업했다는 뉴스를 해주셨는데 이 전에 중앙에서 저출생 기획으로 5부작으로 해서 보여준 내용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160개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게 많이 와 닿았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1인 가구 고령층이 되었을 때 당면한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생각하지 못하고 대책으로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게 짧게라도 기획 보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시각각> '2025 대입혼란'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나 하고 열심히 봤는데 주 내용은 고학력 고득점자들이 더 많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더 혼란스럽다는 내용인데 이 현상에 대해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재 고3은 적용되겠지만 아직 중학생이라든지 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시시각각>에서 1회분으로 다루기에 분량이 적다면 2부까지 제작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와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의 대안들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섬교 위원

<라이브라이프사운드>라는 프로그램을 즐겁게 봤는데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비씨와 케이씨엠이 진행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한 달 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했는데 음악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시대공감>프로그램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시대공감>은 라디오 지역 방송으로서의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월화수목금 주제도 확실했고 박선자 진행자분의 진행형식도 좋았고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놓치지 않게 홍보를 해서 <시대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매주 화요일 청년이 이슈다 코너 진행도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었어요. 저도 청년들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깨닫고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스티커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진행해 주셔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충남대 한발대의 통합에 대한 것도 TV로 보다가 라디오로 듣는게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았습니다.

8월 6일 <시대공감>에서 대전 펜싱 이야기가 거의 15분이었거든요. 오상욱 선수는 대전시청 소속이어서 그 부분은 진행자가 얘기하고 넘어가도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않게 15분 동안 대전시청 펜싱 감독이 나오셔서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와 대전시청 펜싱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대전MBC에서 늘봄 학교를 뉴스데스크에서 다뤘는데 8월부터 대전교육청에서 늘봄 교육이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에서는 8월 19일 자로 보도가 조금 길게 2분 넘게 방송이 됐는데 MBC에서는 늘봄 학교 보도를 너무 짧게 보도했습니다. <시대공감>에서 약간 다루었으나 늘봄 학교 문제는 대전교육청의 전면 실시와 동시에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프로그램의 소재로 조금 더 다루주길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공감>에서 또 좋았던 점은 IQ가 71에서 84사이를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 처우나 인식 개선에 대한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배려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왜 다른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분류되거나 패널티를 받을 부분이 아니라 그냥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성일 위원

지난달에 오지 못해서 두 달 동안 보도프로그램들을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지난 달 보도이지만 산내 골령골 피학살자들 위령제 보도 같은 경우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평화공원 신속 조성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매년 얘기되는 부분이라서 올해의 특징을 잡아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올해 나왔던 발언했던 유족들이나 발언자들의 핵심은 현재 진화위 위원장들의 전시 상황에는 시민들을 직결 심판할 수 있다는 망언과 진화위 진실 규명률에 대한 지탄이 줄을 이루는 발언이 있었는데 현장 목소리가 반영이 안돼서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매달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 노동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대전MBC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후속 보도가 계속되면서 그 문제가 긍정적으로 대책이 잘 수립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에 관심을 주는 경우에 또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요.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이야기도 다뤄지는 것 같아요. 5월에도 천안 공장에서 사망했던 일이 있었고 8월에도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사망의 경우에 많은 언론들에서 후속 보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생명이 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듯이 대전MBC답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염 취약계층 이야기도 지난달 회의 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심층 보도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재난 직후에 보도를 하고 재난 지역 선포가 되었다는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이후 1주일 뒤 2주일 뒤 그리고 한 달 뒤 대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지켜보는 게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달부터 더위로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온열 질환에 대한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맞게 <건강플러스>에서는 온열 질환을 다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고요. 건강관련 소재를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 부활에 굉장히 반가웠고 잘 봤는데요. 두 번째 프로그램부터는 토론 전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시청자가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토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전국적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면 지역 언론만큼 지역에 대한 의제를 발굴해서 토론이 이루어지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7월, 8월 유익한 프로그램 보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9월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다각적인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사 특별 기획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를 봤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기본 형식은 많이 하던 거죠. 현장 방문해서 그 지역 소개하고 지역민들과 대화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아주 간단하게는 MC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섭외했고 소리채집자 개념과 현장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나중에 리믹스를 만든다는 개념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소리 채집자로 매회 초청되는 가수와 MC와의 토크 실력, 라이브 실력이 좋은 가수 섭외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형식에 머물 수도 있는 것에 재미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예능의 기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어민이라든가 자가발전소 부소장, 주민들, 중년층 삼총사 이런 현지인들도 굉장히 천연스럽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소극적이지도 않게 대화에 잘 응대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영상 매체에 적응력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콘셉트 구성이나 초청 연예인, 또 현지민들의 성격들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요.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재미가 기대되더라고요. 보면서 계속 재미있고 또 끝날 때는 다음 주 예고에 장미여관이 나온단니까 더 기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쩌면 창사 기획이라서 출연자들에 대한 제작비를 더 써서 더 재미있게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창사 60주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회사 차원에서 증액되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해에도 같은 값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오늘M>에서 청양군 소식 전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지난번 시청자 의견에서도 짧게 나왔었는데 각 군마다 특집 방송처럼 여러 축제 등을 소개하면서 군수님들이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섭외나 광고 등 속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군수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잘하시는 편도 아니고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나 진행자분들의 보조 없이 지루하게 15분 정도 프로그램을 잡아 먹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채널을 돌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역 방송사 사정상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업 방송들을 하셔야 되니까 출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못하고 만약에 지자체장분들이 출연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 부분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MBC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역 방송에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논조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파산 이슈가 생각보다 큰 이슈인데 지역 언론에서 다룰 때 의료진 파업이나 전공의 부족 때문으로 보통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 영향이 당연히 있긴 한데 왜 하필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 중에서 충남대학교 병원이 가장 먼저 파산하려고 하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충남대병원 세종병원을 무리하게 짓다가 빛이 너무 많아서 계속 적자 운영하다가 여기에 더해 의료진 이슈까지 터진 거잖아요. 이건 경영진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

야 되거든요. 다른 병원들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는데 왜 충남대학교가 못 버텼는지 이런 심층적인 보도들이 지역 언론에서는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이 이슈가 그냥 전공의가 부족해서입니다 라고만 다루는 건 이슈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병원 짓느라 4천억 원 정도 빚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척된 이슈인데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담을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천담 한 군데가 유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슈들은 언론에서 다룰 때 자칫 잘못하면 남비 현상처럼 다루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지천담 이슈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로 환경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천담을 만들면 그 곳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홍수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후위기 대응 담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천담이라고 하는 그 위치 혹은 그 곳에 담을 짓게 되면 지난번에 났던 홍수 문제들이 진짜 발생하지 않는지 먼저 다루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천담을 만들면 이 문제가 진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갈등을 다뤄야 되는 건데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왔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환경단체에서 코멘트 하나 다루는 것 정도 외에는 전혀 다루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해보면 최근에 홍수 유형 자체가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다 보니까 댐 건설 같은 경직된 대응들보다는 제방이라든지 인근에 홍수터를 여유 있게 만들어 놓는단지 이런 생태적인 대안들이 실제로 효과가 더 많다는 입장과 분석 결과들입니다.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 외에 자꾸 이 이슈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주민의 입장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댐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해야 된다는 지자체 입장 이 두 가지 이슈로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같아서 대전MBC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이슈들 위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시각각>과 연계해서 더 심층적으로 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지천담과 충남대병원 등 어떤 사안들을 보도할 때 지역에서만 실제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도의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전MBC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영시 축제 관련해서 정보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에 대한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보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현재 충남도가 내세우는 외자 유치 20조, 대전시가 내세우는 영시 축제 4천억 원 경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팩트가 잡혀서 보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담당 기자들이 취재 발제를 해놓은 상태여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시각각>을 제작할 때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만 당한다고 해서 폐지됐을 때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다들 관심 갖게 지켜보시고 무언가라도 지역사회 의제 설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부트를 한 건데 오늘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목을 참신하게 뽑아달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제작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2부 제작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작진들과 협의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으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사막화 기획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윤소영 기자가 발굴해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가서 현장 취재를 했고요. 대도시엔 잘 알려지지 않은 식품 사막 지도를 데이터를 모아서 그려보겠다는 말을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인력은 적지만 다양하게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는 기획법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같음 하겠습니다.

저출생 1인 가구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사건팀에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초창기 때 많은 기획 보도를 했음. 또한 저출생 문제뿐 만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단계고 이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떻게 사회 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내부에는 또 다른 차별은 없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보도하겠습니다.

산내 골령골에 대해 이슈화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내 민간인 학살 관련 교육 노력도 했고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충남대병원 파산에 대한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요. 지천담 이슈가 제 생각에는 요즘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현장에 다녀왔고 환경부 설명회하는 현장을 봤는데 지금 주민 의견들이 너무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 찬반인데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 댐이라고 해서 전국에 14개를 만드는데 과연 그 논거가 진짜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뉴스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이점교 위원님께서 라디오 <시대공감>을 한 달 동안 청취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퇴직하신 박선자 전 편성국장의 진행 능력은 여성 진행자로서 지역에서 가까운 자원이시고 패널들도 다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엔 우희창 정치평론가, 화요일에는 김영진 위원, 수요일에는 리포터 취재, 목요일에는 행정학과 교수들이 나오셔서 지역의 정치 현황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9월 13일까지 방송하고 잠깐 쉬었다가 내년 1월 시간대를 8시 반에서 9시 <손에 잡히는 경제>시간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사프로를 런칭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때는 요청하신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신경을 쓰겠고, 말씀하신 소외되는 이웃들 또 우리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얘기를 다루는 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제작진이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라디오 청취율이 제일 높은 프로그램이 서울MBC 아침 시사 프로와 저녁 시사 프로인데 출퇴근 시간대 MBC 시사 프로가 전체 라디오 시청률 1, 2위입니다. 그 정도로 MBC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저희가 <시대공감>으로 서울의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를 차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3부에 누가 나옵니다하고 예보하지만 저희는 로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건강플러스>에서 온열질환이 다뤄졌더라면 하는 말씀도 저희가 새겨들었습니다. 여름에 저희가 다뤘던 질환들이 관상동맥 족부 질환, 뇌종양 등 시의성에 관계없는 주제들인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시의성에 신경을 서서 제작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에 대한 지적과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집행하지 않았던 예산이 있었는데 창사 60주년 예산으로 변경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작비 중에 가수 KCM을 메인MC로 12부작을 써야 하고 그에 맞는 가창력이 좋은 가수들을 매회 초대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연료 부담도 있었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게 먹히겠느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는데 서울MBC <나혼자 산다>도 처음에 나올 때 다 그랬거든요. 기성세대가 불 때는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MBC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도 젊은 30대 PD들에 의해서 탄생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30대 PD들이 한두 달째 집에 못 가고 주말마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 죽도 영상이 아름다운 소재였고 다음에는 대전 대화공단 산업단지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많이 담을 거고요. 충남장애인협회, 체육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대전공공어린이집 재활병원 등 주제별로 구성해서 톤이 높은 재미있는 가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마지막에 멋진 작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작에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청양군수 출연 말씀하셨는데 대전MBC가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대행사입니다.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번 지적도 있어서 군수님 얼굴을 약간 왼쪽으로 작게 잡고 오른쪽에 크게 화면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희가 앞에 다뤘던 프로그램 코너들이 그날따라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군수님 시간이 더 늘어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진종재 사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알찬 지적들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설명, 또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60주년 기념사업들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시청자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매번 많은 이슈들에 대해 예리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서도 근무하고 대전에서 근무를 합시다라는 서울은 나름대로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이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 방송사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보다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회의 때마다 느낍니다. 저희도 지역 시청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8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